



신속항원검사

개정('23.2.)



전문가 합의 권고

1. 신속항원검사는 PCR 검사와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D
시행 반대

C
조건부 시행 반대

I
권고 보류

B
조건부 권고

A
강하게 권고

2. 코로나19 의심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단독 시행은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단,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지고 PCR 시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임상적 고려사항

바이러스 변이형에 따라 진단 정확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무증상인 경우 민감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다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변이형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조영증강 흉부CT 촬영

개정('23.1.)



D
시행 반대

C
조건부 시행 반대

I
권고 보류

B
조건부 권고

A
강하게 권고

1. 폐색전증이 의심*되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조영증강 흉부CT 촬영을 고려할 수 있다.

* 혈액검사서 D-dimer가 상승하였거나 호흡곤란, 저산소증, 흉통 등과 같은 의심증상 발현 시

흉부영상 X선 추적검사

유지('21.12.)



D
시행 반대

C
조건부 시행 반대

I
권고 보류

B
조건부 권고

A
강하게 권고

코로나19 감염환자는 치료과정 및 격리치료 종료 후 흉부X선 추적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이동형 개인 음압격리챔버를 이용한 흉부CT검사

신규('22.10.)



전문가 합의 권고

비말감염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격리 중 격리병상 밖에서의 흉부 CT 촬영이 필요할 때에는 음압격리챔버를 이용해 환자를 외부환경과 격리시킨 채 CT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임상적 고려사항

코로나19는 비말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전염병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방식으로 CT 촬영을 진행할 경우 검사실의 오염을 초래해 원내 2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때문에 음압격리챔버를 이용해 전염병 환자를 외부환경과 격리시킨 상태에서 CT 촬영할 것을 추천하며, 이때 음압격리챔버로 인한 X선 투과 방해와 CT 영상의 품질 저하는 CT 영상의 판독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는 음압격리챔버의 종류, 환자 질환의 심각도 및 CT 검사 방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확인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권고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음압격리챔버를 사용하더라도 CT 검사실에서는 검사 전후로 소독, 청소 및 환기와 같은 마무리 과정이 필수적이다.